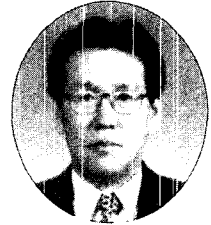


# 자연환경에 대한 권리와 의무



이 상 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88년에 합천댐의 건설이 거의 완료되는 시점에서 저수지 주위에 관광지를 개발하는 계획의 타당성을 판단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현지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당시 관광지 개발에 대한 현지 주민들의 기대는 대단했었고 군수등 관련 공무원뿐 아니라 지역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관광지 개발이 반드시 성사되어야만 한다고 역설하였다. 여기에 더해 지방 언론들도 저수지 수질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거론하지 않은채 관광지 개발의 필요성만을 강조하였던 것을 기억 한다.

5년여가 지난후 대청호의 부영양화에 따른 수질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대책마련을 위한 회의를 참석하였는데 불과 5년사이에 저수지에 대한 주민들이나 언론의 시각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나라 중부지역의 주요 수원인 대청호의 수질보전의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면서 언론들도 수질보전을 위해서는 주변의 개발이 억제되어야 하고 부영양화를 막기 위한 대책들을 제시하는데 열심이었다. 당시 대책회의에 참석하러 가는 중에 5년전의 자료와 비교하면서 짧은 기간에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느낄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내린천댐등 물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댐 건설계획 자체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하여 취소되고 있으니 정말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경험들은 '80년대 이후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들의 시각이 달라진 것을 보여주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환경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가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정해질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88년 합천호의 경우는 댐

건설에 의해 수몰된 지역의 주민들이 수세대를 거친 생활의 근거를 잃으면서 관광지 개발을 강력히 요구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생활을 돌보아야 하는 입장에서 수질보전이라는 장기적인 문제보다는 눈앞의 문제 해결이 앞선던 것으로 판단 된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댐하류에 이주단지를 조성한다는 당초계획을 무시한채 관광지 개발을 추진하였고 관광지에서의 수입은 군의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등 모든 여건상 관광지 개발이 우선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저수지의 수질보전이 개발에 우선하게 되었으며 자연환경을 심하게 훼손시키는 건설계획자체를 취소하고 물 부족에 따른 다소의 불편은 감수하겠다는 정도까지 변화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1970년 4월 "지구의 날"을 정하여 하나뿐인 지구를 구하자는 운동이 시작된 이래 많은 나라에서 정부조직으로 환경관련 부처를 설치하고 환경보전에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지구는 계속 병들어 가고 있다. 그동안에도 중국의 총 경작면적에 해당하는 경작면적이 사막화 되었으며 미국의 동부지역 면적과 비슷한 약 2억 ha의 삼림이 사라졌고 수만종의 동식물들이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따라서 "지구의 날" 행사를 주관했었던 Danis Hayes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 해 보면서 환경파괴를 막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표현한 적이 있다.

"우리는 그동안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 많은 투쟁을 했었고 이 투쟁에서 이겨 왔는데 왜 지구 환경파괴와의 전쟁에서 지고 있는 것인가?"

이같은 질문을 접하면서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환경오염에 의한 피해자일 뿐 중요한 원인자라는 것을 심각하게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환경과괴를 걱정하면서도 우리들의 생활관습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획기적인 방안을 시행하지 못하고 미온적인 방안만을 시도하기 때문에 뚜렷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즉 아무리 심각한 환경문제라 해도 이 문제들이 우리에게 직접 피해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우선순위가 낮게 되고 환경문제의 해결은 우리가 최소한의 불편을 감수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질적인 해결책이 시행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느끼는 정도에 주관성이 많이 작용한다는 것은 얼마전 미국의 GAO(심계원, General Accounting Office)에서 미 하원에 제출한 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기후협약등 국제적인 협약들에 의해서라도 각 나라들이 문제 해결에 공동으로 대처해야 하는 지구온난화 문제를 미국 EPA에서는 가장 위험성이 높은 환경문제로 지적하였으나 이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위험도는 거의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위험도의 순위가 대상에 따라 크게 다르게 나타났다. 지구 온난화에 의한 엘니뇨 현상으로 지구촌 곳곳에 기상이변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도 온실가스의 감축에 대한 각 나라의 이해가 달라 탄소방출량이 매년 증가하는 것만 보아도 환경문제를 대하는 주관적인 입장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생명체를 유지시키는 지구의 능력(또는 용량)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 능력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Net Primary Production'이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데 식물들이 광합성에 의해 고정시키는 태양에너지의 양으로부터 식물들의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를 감한 양으로 표시되며 이것이 결국 지구상의 모든 생물의 삶을 유지시키는 식량이 된다. Stanford대학의 생물학자인 Peter Vitousek교수는 현재 지구전체의 'Net Primary Production'의 30%가 사람들에 의해 소모되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2030년에는 이 비율이 80%로 높아져 나머지 동물들에게 돌아갈 식량이 얼마 없게 되어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수만종의 동식물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가 있다.

무절제한 자원활용과 개발은 계속 자연환경을 훼손시키고 자원을 고갈시켜 결국 우리 삶의 근원인 지구를 잃게 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 무절제한 자원의 활용과 환경과괴가 자연의 재앙으로 나타나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는 여러 가지 형태로 경험하게 된다. 천혜의 자원인 물도 개발과 관리에 있어서 자연환경에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로 러시아공화국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거대한 호수인 Aral Sea의 재앙을 들 수가 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호수였던 이 호수와 이 호수로 유입되는 Amu Darya강과 Syr Darya강은 지난 수세기동안 이 지역주민들 생활의 젖줄이 되어 왔으나 무절제한 사용으로 호수로 유입되는 유량이 줄어들어 이 호수의 저수량이 감소하고 염도도 높아져 이 지역 5천만 주민들의 수자원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건강을 위협하는 상태가 되고 있다. 이같은 상태가 지속될 경우 Aral Sea는 원래 크기의 6분의1에 지나지 않은 염해가 되어 결국 지도상에서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하여 국제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UNEP와 일본을 중심으로 이 호수를 살리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미 환경오염의 피해를 경험해 온 우리들의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은 전에 없이 높아졌으며 의식수준도 높아져 이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것이 상식화 되어 있다. 얼마전까지만해도 환경에 대한 인식은 높아졌으면서 환경을 지키는 의식은 이에 미치지 못해 문제점의 제기만이 무성했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별다른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으나 이제는 어느정도 의식수준도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환경을 지키는 의무를 다하지 못한채 깨끗한 환경에서 안락한 생활을 즐기려는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은 지역이기주의만을 팽배하게 할 뿐이며 "대한 관심이나 염려가 또 다른 환경문제를 낳는다"는 말을 실감하게 한다.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즐길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또한 이 자연을 공유하기에 적합하도록 지



킬 의무도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의 하천을 공유하는 상류지역과 하류지역의 분쟁도 큰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본다. 상류지역의 주민들이 하천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처리시설을 갖추고 운전하는데에 소요되는 경제적인 부담이 자신들에게는 직접적인 혜택이 없기 때문에 일부를 실질적인 수혜자인 하류지역의 주민들이 분담해야 한다는 논리는 일견 타당한 것 같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자연을 오염시킬 권리가 없으며 권리보다 자신들이 하류로 내려보내는 하천을 깨끗이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가 강조될 때 이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잃게 된다.

환경문제가 공공성이 강하고 환경개선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정부가 환경보전에 주도적인 입장을 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아무리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해도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규제가 없으면 이에 대한 노력과 투자는 감소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제 우리는 각종 환경관련 국제협약에 묶이게 되어 국제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노력이 약해질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나 금세기초의 연간 총생산량을 불과 10여일에 생산할만큼 활동의 규모가 커지고 다양화된 사회에서 환경을 파괴하는 요인은 계속 증가될 것은 당연하며 이 모든 문제를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를 바랄 수는 없다. 우리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요 원인자의 입장에서 환경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우리는 아직도 물 오염문제가 발생하면 관련 정부를 탓하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수질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를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기업들은 정부가 정하는 규제를 겨우 만족 시키는 최소한의 노력외에는 거의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진국의 기업들이 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생산공정을 개선하고 환경 친화적인 원자재로 대체하는 노력을 하면서 처리수의 최종 방류수역의 수질을 포함하는 주변환경의 환경질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조사 분석하는 Self Monitoring System

을 갖추어 환경을 지키는 의무를 충실히 하는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벌써 20여년전서부터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가동되기 위해서는 공정에 대한 설명서외에 완벽한 환경관리계획이 첨부되어야 했었으며 특히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관리와 처리를 철저히 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여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기업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수질 측정과 감시는 앞서 소개한 기업들의 Self Monitoring System의 에 수많은 Monitoring Station에서 행해지는데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monitoring이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도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일본에서도 우리마을 우리강 가꾸기운동 등으로 하천 수질을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자연하천의 모습을 되찾는데도 큰 효과를 보고 있어 결국 우리의 환경은 우리 스스로가 지키고 보호하고 지키는 의무를 다 할때에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호수이면서 지구상 담수의 1/5을 저장하고 있는 바이칼호의 수질보전을 위해 셀루르즈 공장의 이전을 주도했으며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에 앞장서면서 BICER라는 바이칼호 생태계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체제를 구축한 이 호수 주변의 한 도시 시장의 다음과 같은 말은 환경에 대한 의무의 중요성을 잘 전달해 준다. "바이칼호는 인류역사가 시작한 이래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왔으며 우리를 풍족하게 해 주었다.

이제는 우리들이 그 보답으로 병들어가는 바이칼호를 돌보아야만 한다" 자연환경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는 그동안 자연을 즐기고 이용할 권리만을 내세워 왔으며 환경에 대한 관심도 자연환경을 이용해온 이 권리를 상실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자연환경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으로서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고 베푸는 입장이 되어야 하며 권리에 앞서 의무를 다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